

광주특별시교육청-전남대, 반도체·AI 인재 양성 ‘맞손’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구축...‘교육 지식지소’ 실현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하는 성과환류체계도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가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전남대에서 전남대와 미래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청의 초·중등 교육 기관과 전남대의 첨단산업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해 학생들이 초·중·고교부터 대학, 산업 현장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대학-산업체 연계 인재양성 체계 구축 △초

·중·고 학생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대학 공동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원 AI 활용 역량 강화 연수 및 멘토링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또 AI 교육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 교육·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성과 환류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지역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학생의 성장 단계와 역량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대학의 전문 인력과 연구시설, 장비를 학교 교육과 연계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변화에 맞춰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배움에서 일자리,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를 전남대와 함께 구축해 ‘교육 지식지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대중 광주특별시교육감과 이근배 전남대 총장이 최근 전남대에서 ‘반도체·AI·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특별시교육청



이재명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31일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공식 기념촬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엔뉴스

‘국가 AI컴퓨팅센터’ 오늘 기업도시 솔라시도서 첫삽

총사업비 2조4065억...2028년 40MW 규모 준공
초고성능 GPU기반 컴퓨팅 자원 구축·운영 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의 첫 발을 내딛는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3일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솔라시도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배정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김유

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김세웅 카카오투자, 노형래 KT 본부장, 황준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이사,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AI 산업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초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자원을 구축·운영해 산업계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다.

센터는 오는 2028년까지 40MW 규모로 구축되며, AI 수요 증가에 맞춰 2030년까지 80MW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4065억원을 투입해 대지 4만9053㎡ 건축면적 1만7839㎡(연면적 3만3740㎡) 규모로 전산동과 운영동, 부속동 등을 조성한다.

센터가 구축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소프트웨어, 디지털서비스 등 관련 기업의 집적과 전문인력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글로벌 AI 강국 도약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동시에 견인하는 전략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지난해 9월 과기부의 공모 계획 발표 이후, 전남도와 삼성SDS 간 행정지원 약식서, 컨소시엄 기본협약 체결과 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정책 평가와 금융심사를 거쳐 올해 5월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민간참여자로 확정되면서 이날 착공까지 이어지게 됐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연합뉴스

민형배 “폭염은 재난...인력·장비 총동원”

“시민 안전 최우선” 폭염 대응 ‘총력’...시·구·군·기관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월 극한 폭염이 예보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친다. 민형배 특별시장도 최근 열린 ‘통합상황 점검회의’에서 “통합특별시와 시·구·군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침에 따른 폭염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에 11일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앞으로도 40도를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시·구·군

및 관계 기관과 폭염 대응 단일체계를 구축, 지역별 특성과 현장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특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인 통합특별시는 예산, 인력, 장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시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

먼저 기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생활지원사 등을 통한 전화·방문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또 폭방 주민과 노숙인 등에 쉼터와 응급 점자리를 제공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총출한 안전망을 가동한다.

건설 현장 등 야외 사업장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보건 조치 의무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사업장 내 폭염 행동수칙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사항 등을 적극 이행토록 한다.

택배·배달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과 폭염 대응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폭염은 시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위협하는 여름철 재난”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가능한 예산,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AI협력·전략광물 확보’ 성과 안고 귀국길 李대통령, 미·남미 순방...1300조 협약·메르코수르 협정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미국과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방에서 AI(인공지능) 시대 3대 메가프로젝트 비전을 글로벌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협력을 가시화하는 한편, 남미 3개국과의 교역확대를 통해 전략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다지고 에너지 안보를 키우는 성과를 거뒀다.

취임 후 최장 기간인 7박 11일 간의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독일을 경유해 3일 귀국한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미국을 방문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들의 총 9500억달러(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이끌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위탁생산)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고,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과 5년간 75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기 공급 협력을 진행키로 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는 한편 삼성SDS와 엔트로픽은 AI 신규 시장을 공동 발굴키로 했다.

이어 취임 후 첫 남미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7개, 칠레에서 5개, 아르헨티나에서 1개 MOU를 체결했다.

브라질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

는 △우주 협력 MOU △체육 협력 MOU △교육분야협력각서(MOC) △에너지 협력 MOU △산업기술 협력 MOU △영화 협력 MOU 갱신 △사이버보안 협력 MOU 등 총 7건 문건에 서명(별도 서명 포함)했다. 칠레 공식방문에서 양국 정부는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 △치안 협력 MOU △극지 연구 협력 MOU(개정) △해양 안전 및 안보협력 MOU △투자 협력 MOU 등 5건 문건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서는 히토류, 칠레에서는 구리와 리튬, 아르헨티나에서는 리튬 등의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MOU 또는 공동성명에 담았다. 브라질은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국이고 칠레는 1위 국가 생산국이자 2위 리튬 생산국이다. 또 아르헨티나는 4위 리튬 매장국이다.

에너지 안보도 강화했다. 정부는 아르헨티나 방문에서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에너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한-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무역 협력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브라질 대통령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내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했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협상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 조직개편 노사협의체 첫 회의 시민 중심 개편 원칙 공유...내일 조직개편 초안 공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을 논의할 노사 공동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과 향후 협의의 일정 등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광주특별시 조직·인사 부서와 광주·무안청사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8명은 지난달 31일 광주청사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시 조직·인사 담당자 4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남도청노동조합, 전남열린노동조합 등 3개 노조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조직개편의 세부안보다는 향후 협의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

견이 오갔다. 노사 양측은 시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통합특별법에 규정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청사별 기능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가 마련 중인 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시는 4일 무안청사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초안을 노조측과 공유하고, 청사별 기능 배치와 지원 부서 분산, 인력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1면 ‘호남 반도체’서 계속

이번 특별법 추진 방향에는 기업들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0.6%는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필요한 제도로 꼽았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도입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

로 제시됐다.

반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는 올해 초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보고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법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고 발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내에서 규제특례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